

관광지로 각광받는 道頭港

석산개발, 민원 해소에 전력 투구

제2방파제 건설로 어선수용능력 키웠으면



李在滿

〈(株)宇洲綜合建設 道頭港 現場所長〉

제 주의 관문인 제주항 서쪽 4km에 위치한 도두항은 동북방향으로 우뚝 솟은 제주의 상징인 기생화산 오염중에 하나인 도두봉을 등에 업고 앞으로는 활트인 제주 국제공항 활주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제주시의 중심 어항단지로 받들옴하고 있다. 특히 도두항을 감싸고 있는 해안절벽 경관이 뛰어나 제주시 인근 낚시꾼들과 관광객들에게 더 없는 기쁨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본 항의 개발연혁을 간추려 보면 1972년 제주도에 개발한 후로 76년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 수산청에서 제1차 공사를 시행한 후 금년 제5차 공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270여 어업 및 겸

업가구에 1,100여명의 인구를 비롯해, 90여척의 지원어선을 소유하고 있다.

한치, 돌멍게 등은 도두항의 별미

어획량은 약 1,200여톤에 주 어종은 갈치 오징어 돔 소라 전복 등이다. 특히 한치 오징어와 돌멍게는 본 항에서나 맛볼 수 있는 청정의 별미 상품이다.

여기서 잠시 도두항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북방파제 150m, 남방파제 664m, 물양장 243m, 호안 192m, 선양장 30m, 준설 7,399m³, 기타로 93년까지 총 공정은 북방파제 150m 등대1기 남방파제(사



석)274m, 호안 134m 기타 공사로 전체규모의 약 23% 수준에 이르며 큰 변화가 없는 한 목표년도인 96년까지는 90%공정이 완료되리라 생각 된다.

외각시설 및 접안시설이 갖추어지면 현재 제주항에 있는 어선은 물론 태풍 폭풍시 인근어장에서 조업하는 외래선박까지 대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인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1종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근거리 석산 개발로 공기단축, 비용절감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 계획으로는 정온 수면적이 적다고 생각되며 현재 시공된 북방파제 북동쪽으로 제2의 북방파제를 계획한다면 수심이 깊어서 대형어선도 입·출항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본 항 개발에 따른



시공사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공사의 주종은 양과 질이 좋은 석산개발이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환경처 및 산림청의 제재가 강화되고 주민 의식이 고조되어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석산개발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주들로 구성된 석산개발반대투쟁위원회의 활동이 거센 편이다.

본 항도 92년까지는 38km 지점에 도심지를 통과하는 행원석산을 이용해 왔으나 92년 중반부터 현재의 석산개발에 전념한 결과 93년초에 마을회의에서 동의를 받고 허가를 득하여 16km의 거리가 단축된 현재의 석산을 이용케 됨으로써 공기단축은 물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둘째, 어느 항이든 어항은 자연부락을 끼고 형성되어 있어서 중차량이 마을진입로를 통과하는 것이 문제다.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분진발생, 소음공해, 진동으로 인한 인근주택 균열, 도로파손, 안전관리문제가 발생했다. 수차례의 마을대표들과 협상을 거쳐 폐사에서 마을진입로 확장 및 아스콘 포장, 사석 반입시 안전요원 배치와 동시에 살수요



원을 2명 배치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키로 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도로 주변 주택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리라 본다.

품질관리 위해서 새로운 각오

셋째, 전문하도급업체 선정이 공기단축은 물론 경제적 손익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도급업체의 수중장비 보유현황 및 항만공사의 전문기술자 확보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항만공사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세가지 조건만 해결된다면 기타 제반 문제는 별 어려

움없이 시공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올 한해는 폭풍 및 태풍이 많이 지나감에 따라 공정이 다소 늦어져서 그로인한 공기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 인해 어항관계 당국과 현장감독관계 여러모로 걱정을 끼쳤으나, 올해를 거울삼아 94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품질관리 및 공기단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끝으로 어항개발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지도편달을 바란다. ☞